

안녕하십니까?

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 약물알레르기 연구팀을 소개 드립니다.

약물알레르기 연구팀은 2010년 9월 약물알레르기의 진료와 치료에 관심이 있는 회원들을 중심으로 결성되었다(팀장: 이화의대 조영주 교수, 간사: 동국의대 손성욱 교수). 2014년 3월부터는 서울의대 강혜련교수와 양민석교수가 각각 팀장과 간사를 맡고 있으며, 현재 45명(내과 35명, 소아청소년과 8명, 피부과 1명, 예방의학과 1명)의 회원이 참여 중입니다.

최근 약물유해반응에 대한 관심도 지속적으로 고조되고 있어 2012년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설립 되었고, 2014년 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제도가 시행되는 등 약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그 어느 때보다도 관심이 높습니다. 특히 약제에 의한 아나필락시스, 스티븐스-존슨 증후군, 독성표피괴사증후군, 드레스 증후군 등의 약물에 의한 중증피부유해반응들이 최근 사회적인 이슈로 떠올라 의료인들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약물알레르기의 위험성과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약물알레르기는 환자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최근 사회적으로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지만, 이런 시대적 흐름에도 불구하고, 약물알레르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있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 약물알레르기 연구팀은 우리가 잘 모르는 약물알레르기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고 또 다기관,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들이 모여 있다는 장점을 활용하여 약물알레르기에 대한 임상연구와 교육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12년 약물알레르기 연구팀에서는 일선 임상의사들의 진료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항생제피부반응시험지침을 출간하였으며 2014년도에는 지금까지 잘 정립되어 있지 않았던 약물알레르기와 관련된 한글용어를 정리하였습니다. 이후 본격적인 다기관 연구를 시작하여 2015년에는 11개 기관의 자료를 모아 기존 중등증 이상의 조영제 과민반응의 과거력이 있었던 고위험 환자들에게 다시 조영제를 사용하였을 때의 결과를 확인하기 위한 후향 코호트 연구를 구축하였고 연구의 결과를 2017년 European Radiology 저널에 보고하였습니다. 특히 이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2017 미국영상의학회 조영제 지침이 변경 되어, 조영제 과민반응 진료에 국제적으로도 좋은 영향을 주었습니다(Park HJ, et al. Re-exposure to low osmolar iodinated contrast media in patients with prior moderate-to-severe hypersensitivity reactions: A multicentre retrospective cohort study. Eur Radiol 2017;27:2886-93). 2016년에는 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 연구팀 연구비를 수주하여 세팔로스포린 피부반응시험의 임상적 효용을 확인하는 다기관 연구와 베타락탐 항생제에 아나필락시스를 보인 환자들의 특성을 확인하는 다기관 연구를 시행하였습니다. 세팔로스포린 피부반응시험의 임상적 효용에 대한 연구에는 총 12개 기관 연구자가 참여하였고 결과는 2018년 Allergy 저널에 보고하였습니다(Yang MS, et al. Incidence of cephalosporin-induced anaphylaxis and clinical efficacy of screening intradermal tests with cephalosporins: A large multicenter retrospective cohort study. Allergy 2018 e-pub). 2017년에는 중증피부유해반응 레지스트리 구축을 위해 대한천

식알레르기학회 연구비 수혜를 받았고, 현재 37개 기관의 참여로 한국인에서 중증약물유해반응 자료를 정리하여 논문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약물알레르기 연구팀에서는 약물알레르기 환자의 올바른 진단과 치료 및 약물알레르기 관련 최신 지견 공유를 위해 다양한 형태의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는 “의료현장에서 약물알레르기 관리”라는 주제로 약물알레르기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는데 특히 임상현장에서 관심도가 높은 조영제 및 항생제 알레르기에 대하여 논의하는 시간을 가지는 한편, 정부에서 진행 중인 DUR의 현황과 전망, 문제점 등을 짚어보고 토론하는 장을 마련하여 큰 호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2018년에는 연구팀 중에서는 최초로 해외 연자를 초청하여 “약물탈감작요법”을 주제로 약물 알레르기 심포지엄을 기획하였고, 전국 각지에서 많은 청중이 참여하여 약물알레르기를 보다 적극적으로 극복하기 위한 경험을 나누는 유익한 시간을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약물알레르기 연구팀은 팀원들의 관심사를 중심으로 최신지견에 대한 공부와 다기관 공동연구를 병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 드립니다.

연구팀장 강혜련/간사 양민석